

아동의 개방성, 양육태도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창의성의 매개효과

정소연¹, 김근영^{2*}

¹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²서강대학교 심리학과

Relations Among Openness to Experience, Maternal At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of Children: Mediating Effect of Creativity

So Yeun Jung¹ and Geunyoung Kim^{2*}

¹Yeongdeongpo-gu Counseling & Welfare Center for Youth

²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창의성과 많은 관련을 가진다고 알려진 개인내적 변인인 아동의 개방적 성격과 대표적인 양육변인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이 변인들이 창의성을 매개하여 아동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 하였다. 248명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 결과, 아동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창의성을 부분 매개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창의성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안녕감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개방성 성격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창의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으며,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특별한 양육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부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n's creativity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openness to experience(OE) trait,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and their subjective well-being. 248 children attending elementary schools in the rural areas of Korea and their mothers were recruited. Results indicated that creativit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OE and their subjective well-being. However, creativity did not mediate the relations betwee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the OE may influence children's adjustment through creativity. It is also implied that there may be no optimal parenting style which unconditionally promotes children's creativity.

Key Words : Creativity, Openness of experience, Parenting, Subjective well-being

1. 서론

인간의 창의성 발달과 심리적 속성, 그리고 이 개념이 개인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난 40여 년간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주제이다. 최근에는 특히 매스미디어,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

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확대에는 창의성의 개념의 일반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의 변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의 학자들은 창의성이란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인지적 사고과정이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생성되듯이 창의적 사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 따라서 창의성을 통해 얻게 되는 수확 역시 우수한

본 연구는 정소연의 2010년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Corresponding Author : Geunyoung Kim(Sogang Univ.)

Tel: +82-10-2764-3807 email: kimg@sogang.ac.kr

Received October 22, 2013 Revised November 12, 2013

Accepted March 6, 2014

인재들이 창출하는 전문적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매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키는 역할 등 보다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2].

창의성은 특히 교육 및 상담 장면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교육과 상담의 목표가 결국 인간의 자아성장과 문제해결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고 문제해결을 꾀하는데 필요한 창의성의 개발은 상담 및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가장 좋은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창의성과 관련된 과학적 연구는 주로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에 근거한 접근 방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개인의 삶이 인지적 측면뿐만 아닌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인내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들의 효과를 포괄하는 창의성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국내 연구의 경우 아직도 창의성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진 몇 가지 인지 변인들, 혹은 적응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같은 응답자가 설문지 방식으로 보고하여 이를 단순상관 기법에 근거하여 알아보는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평가자 변인이 개입이 된다는 점에서 상관관계가 부풀려지는 약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의성이 아동의 개인내적 성격특성, 그리고 양육변인들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이를 통해 어떠한 심리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 성격변인인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환경 변인으로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양육방식’을 중심으로 이 변인들이 창의성을 통해 아동의 적응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또한 반응자 변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성격변인은 아동의 자기보고로, 양육방식은 부모의 평정으로, 그리고 창의성은 객관적 검사로 측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변인

창의성에는 다양한 성격요인, 가족요인, 그리고 사회경제적 및 생물학적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사회심리학자들은 주로 성격 및 기질 요인을, 그리고 발달심리학자들은 가족 및 양육관련 변인에 주목해 왔으며, 그 외에도 연령[3]이나 성별[4], 출생순위[5], 혹은 다양한 경험[1]등이 개인의 창의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혹은 사회-인류학적 변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중 성격특성은 많은 창의성 연구들이 집중하여 탐구했던 주제이며, 그중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어온 변인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요인이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성격의 5요인 이론의 요소 중의 하나로 현대 성격심리학의 중요한 축으로 이해되고 있는 개념이다[6]. 개방성이란 적극적인 상상력, 미적 감각과 민감성, 그리고 내적 정서에 대한 민감도 및 지적호기심 등과 관련이 깊은데,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비전통적이고 새로운 방식을 선호하며, 보다 넓은 관심분야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7].

기존 연구들의 결과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창의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험에 대한 높은 개방성을 가진 사람은 독창적인 생각과 다양한 관점과 사고를 잘 받아들이고 당면한 문제를 다루는데 비관습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8]. 또한 개방성은 창의성 특성보다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며,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인 확산적 사고와도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9]. 따라서 기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요인은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선행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2.2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

성격과 같은 개인차 변인뿐만 아니라 환경과 상황의 다양한 요인 역시 창의성 발달에 크게 작용한다[10,11]. 특히 아동이 태어나 처음으로 접하는 가정환경 내에서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이후의 다양한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창의성 발달 역시 이 맥락에서 다루어 보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양육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민주적인 양육방식이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정적인 관련성을 가진다는 연구결과와 더불어 양육방식의 직접적인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두 가지 연구결과가 혼재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아동에 대한 높은 독립성의 추구하고 창의성 하위요인인 유연성 점수 간에는 정적인 관련이 있다[12].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이고 거부적일수록 아동이 더 창의적이라고 보고한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어[13], 모든 연구가 일관된 방향으로 창의성과 양육방식을 예측해 주지는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창의성간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국내의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아동의 창의성과 부모의 양육태도 모두를 아동의 보고에 근

거하여 측정된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보고자에 의해 상관계수가 과도하게 높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는 편이며, 양육태도의 측정에 있어서도 연구자가 임의로 몇 문항을 만들어 이를 통해 측정하는 연구들도 발견되고 있다. 양육태도와 창의성간의 관련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단일 보고자 효과를 배제한 후 보다 철저하게 타당화가 진행된 척도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이 두 변인간의 관련성을 다룰 필요가 있다.

2.3 창의성 발달의 결과변인으로서의 안녕감

창의성의 발달은 개인의 특성(성격)이나 환경(어머니 양육태도)변인에 의해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그 결과 개인이 높은 창의성을 가지게 된다면 개인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 높은 창의성을 보이는 아동일수록 전반적으로 좋은 심리적 결과를 보고한다는 연구는 많은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창의성과 자아존중감은 정적인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14], 창의적인 개인일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도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15].

이러한 변인들 중 최근 연구자들에 의해 재조명 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개념 중의 하나가 창의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련성이다[16].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 평가라 할 수 있는데, 최근 긍정심리학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삶의 긍정적 측면으로서의 안녕감과 창의성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Csikszentmihalyi[10]에 따르면 인간은 창의적인 것을 즐기는 동기와 건강과 만족감을 유지하기 위해 만족도를 높이는 동기의 두 가지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규정된다. 즉, 심리적 만족감과 창의성은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진 인간 본연의 활동 목표라는 주장인데, 그에 의하면 창의적인 사람일수록 인생을 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의 안녕감도 더 높다고 예측되고 있다.

이렇듯 창의성은 성격변인, 특히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양육환경에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창의성이 높을수록 안녕감이 증진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창의성을 매개변인으로 삼아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른 연구 가설들을 요약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창의성에 의해 부분 매개될 것이다. 개방적인 아동일수록 높은 창의성을 보일 것이며,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을 보일 것이다. 또한 아동의 개방성은 안녕감을 직접 예측하는 변인으로도 기능할 것이다.

둘째, 양육태도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은 창의성에

의해 부분매개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일 것이다. 또한 긍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창의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참여자

강원도의 3개 군, 읍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252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부실한 4명을 제외하고 총 248명(남: 124명, 여: 12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령별로는 3학년(10세)이 49%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이 38%, 1학년 11% 순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아동의 부모 중 총 194개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모든 부모가 어머니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경우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연령은 30대가 44%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7%, 50대 2% 순이었다. 총 아동 중 31명(남: 17, 여: 14)은 다문화가정 아동이었다.

3.2 측정도구

3.2.1 아동의 창의성

아동의 창의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동 창의성 검사(Creative Tests for Children: CTC[17])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는 언어와 도형검사로 나뉘어 각각 4개 하위 검사인 유창성, 독창성, 유연성, 정교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주의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전체 검사 중 도형검사만을 채택하여 실시하였다.

유창성 검사는 완성되지 않은 도형을 보고 그 도형과 연관되는 것을 그리도록 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많고 독특한 그림을 완성하는지를 평정한다. 독창성 점수는 위의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반응목록상의 표를 참고하여 채점하는 방식이다. 유연성 검사는 원 16개와 한 변이 없는 사각형 16개로 이루어진 도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그림을 그리도록 하며 여기에서 유효반응의 수의 총점으로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정교성은 미완성된 그림을 제시하고 그 그림을 완성하도록 하여 얼마나 이를 제대로 완성하였는지를 평정한다.

이러한 채점 요강을 기준으로 2명의 평정자가 채점을 하였으며, 채점을 마친 후 채점자간 신뢰도를 Pearson 적률상관으로 산출하였다. 채점자간 신뢰도는 .85(유창성)에서 .98(유연성)까지로 매우 높았다. 전체 창의성 점수는

각 요소 점수의 평균점을 이용하여 환산되었다.

3.2.2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 수용-거부 질문지(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 PARQ[18])로 측정하였다. PARQ척도는 수용요인을 측정하는 8문항, 거부 16문항, 그리고 통제요인을 측정하는 5문항 등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항상 그렇다 까지 4점 Likert 평정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수용요인과 거부요인을 사용하였으며, 거부 요인들의 점수를 역산하여 긍정적 양육태도의 요인으로 삼아 모형에 투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하위척도의 문항간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거부적 양육태도에서 .75,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78이었다.

3.2.3 경험에 대한 개방성

아동의 개방적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NEO아동 성격검사[19] 중 개방성(O)요인 24문항을 사용하였다. 검사의 반응 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는 .85였다.

3.2.4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초등학교생의 주관적 안녕감은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 검사(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K-MSLSS[20])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 친구, 학교, 자아, 환경 영역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 자각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동기 주관적 안녕 연구 분야에서 가장 포괄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도구이다. 총 34문항의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 방식이며,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는 .81이었다.

3.3 절차

아동용 검사 및 설문지는 각 학교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대대일 면접 방식으로 실시가 되었으며, 일부 아동은 일대일 면접으로 실시가 되었다. 소요시간은 약 1시간 정도였다. 아동용 설문지가 작성되면 아동에게 어머니용 설문지를 배부하고, 일주일 뒤 수거하는 형식으로 하였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는 연구자가 자택으로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 실시하였으며, 어머니가 설문지를 완성하는데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양육방식 측정을 위하여 6

개 국어로 번안된 PARQ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와 상관통계, 그리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및 AMO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4. 결과

4.1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

아동의 창의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어머니 양육태도 그리고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의 상관관계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부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안녕감과 부적 관련이 있고, 창의성은 개방성과 안녕감과 정적 관련을 보였다. 개방성과 주관적 안녕감도 정적인 관련을 보였다.

[Table 1] Correlations among measured variables

	A1	A2	B	C	D
A. Parenting					
A1. Acceptance	-				
A2. Rejection	-.43**	-			
B. Creativity	-.03	-.09	-		
C. Openness	.01	.04	.14*	-	
D. Well-being	.07	-.18*	.19**	.33**	-

* $p < .05$, ** $p < .01$, *** $p < .001$

4.2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부모의 양육방식이 창의성을 매개하여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개방성과 양육방식이 창의성을 부분 매개하여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본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두 가지 경쟁모형으로 개방성과 양육방식이 창의성을 완전매개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 및 양육방식이 개방성과 창의성의 이중매개를 거쳐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설정하여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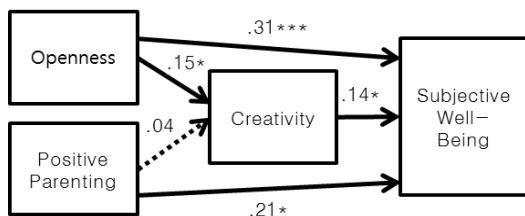
먼저, 본 연구의 기본 모형으로 설정된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양육방식이 창의성을 부분 매개하여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수준이었다($\chi^2(12)=13.7, p=.32, CFI=.99, TLI=.97, RMSEA=.024$).

첫 번째 경쟁모형으로 선정한 개방성과 부정적 양육형태가 창의성을 완전 매개하여 아동의 안녕감을 예측하는 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x

$\chi^2(14)=45.5, p=.001, CFI=.81, TLI=.62, RMSEA=.095$). 적합도 비교 결과 부분매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적합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Delta\chi^2(2)=31.89, p<.001$).

두 번째 경쟁모형은 고전적인 창의성의 개념을 제안한 Carl Rogers[21]의 이론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창의성의 중요한 내적조건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들면서, 이러한 성격이 개인이 안정감을 느끼고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회조건에서 개발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두 번째 경쟁모형은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형태가 높은 수준의 아동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창의성이 증진된다는 이중매개모형을 상정하였다. 이 모형의 경우 만족스러운 적합도를 보였다($\chi^2(13)=20.77, p=.078, CFI=.95, TLI=.90, RMSEA=.049$). 하지만 기본 모형간의 적합도 비교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적합도의 차이가 발견되었으며($\Delta\chi^2(1)=7.11, p<.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직접 아동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이 변인이 창의성을 매개하여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 부분매개모형의 예측변인들의 경로계수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첫째, 개방성은 창의성($\beta=.15, p<.05$)을 매개하여 아동의 안녕감($\beta=.14, p<.05$)에 영향을 미쳤다. 그와 동시에 개방성은 안녕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1, p<.001$). 반면에,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beta=.04, p=.59$), 아동의 안녕감을 예측하는 직접 경로만 유의미하였다($\beta=.21, p=.05$). 요약하자면, 아동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창의성을 매개하는 동시에 직접적으로 그들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창의성과 무관하며, 직접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Fig. 1] Final path model.
Notes: All path coefficients are standardized.
* $p<.05$, *** $p<.001$.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개방적 성격이 창의성을 매개하여 아동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해 준다.

첫째,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아동의 창의성을 부분 매개하여 안녕감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방적인 사람이 환경의 영향에 민감하고 풍부한 정서적 삶을 산다는 기존연구[9]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그와 동시에 창의성이 개방성과 안녕감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기존의 창의성, 개방성, 안녕감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 변인들이 각각 독립된 상관변인들이라는 식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관계가 매개관계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아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창의성을 매개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었다.

서론 부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연구들의 결과도 양육방식과 창의성간에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고전적인 연구들의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방식은 아동의 창의성을 높이는 변인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22]. 하지만 그와 동시에 높은 수준의 창의성이 오히려 높은 수준의 가정 불화와 관련이 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13]. 위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히려 높은 수준의 가정불화가 아동의 내적 자기평가소재(internal locus of evaluation)의 수준을 높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부모의 불화가 많을수록 아동은 부모로부터 비 일관된 피드백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의 의견이 아닌 자기 자신의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부모가 대부분의 가정 사안에 대해 큰 의견 충돌이 없는 가정보단 오히려 부모가 상충되는 가치를 제공해 주는 환경이 아동으로 하여금 더 다양한 시점에서 세상을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까지 예측되기도 한다. 비록 명확한 경험적 연구에 기반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주장은 지지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Gardner[23]는 20세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분석하면서, 이들이 결코 무조건적인 사랑과 온정이 제공되는 이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오히려 부모와 소원한 관계에서 자란 경우라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들을 보면 아동의 창의성과 부모의 양육형태와 관련이 있는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

다. 실제로 Tannebaum[24]은 아동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반화된 부모 양육 형태는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비록 양육형태가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긴 하지만 창의성 발달을 통한 매개효과와는 크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밝힘으로써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하지만 창의성이 전 생애에 걸쳐 발달하고 변화한다는 관점과 다문화가정 아동이 청소년기에 문제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까지를 아우르는 연구를 통하여 창의성과 관련 변인에 관한 발달과정에 대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성격 변인으로 개방성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창의성과 관련 있는 성격변인은 개방성 이외에도 독립성, 비관습성, 융통성[11]등 다양하다. 따라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외의 다른 성격 변인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원칙적으로 창의성의 선행변인의 효과를 확실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의 설계가 필요하다. 비록 본 연구에서 측정된 양육태도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상당히 안정성이 높은 변인이지만, 창의성의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의 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References

- [1] Leung, AK Maddux, WW Galinsky, AD Chiu, C. “Multicultural experience enhances creativity: The when and how.” *American Psychologist*, Vol. 63, pp. 169-181, 2008.
DOI: <http://dx.doi.org/10.1037/0003-066X.63.3.169>
- [2] Sternberg, RJ. *Handbook of cre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 K., 1999.
- [3] Camp, GC. “A longitudinal study of correlates of creativi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Vol. 7, pp. 125-144, 1994.
DOI: <http://dx.doi.org/10.1080/10400419409534519>
- [4] Tegano, DW. Moran, JD. “Sex differences in the original thinking of preschool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Creativity Research Journal*, Vol. 2, pp. 102-110, 1989
DOI: <http://dx.doi.org/10.1080/10400418909534303>
- [5] Baer, M Oldham, GR Hollingshead, AB Jacobsohn, GC “Revisiting the birth order-creativity connection: The role of sibling constellation.” *Creativity Research Journal*, Vol. 17, pp. 67-77, 2005.
DOI: http://dx.doi.org/10.1207/s15326934crj1701_6
- [6] Goldberg, LR “The structure of phenotypic personality traits.” *American Psychologist*, Vol. 48, pp. 26-34, 1993
DOI: <http://dx.doi.org/10.1037/0003-066X.48.1.26>
- [7] Costa, PT McCrae, RR. *NEO personality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Odessa, FL, 1992.
- [8] Leung, AK Chiu, C. “Interactive Effects of Multicultural Experiences and openness to experience on creative potential.” *Creativity Research Journal*, Vol. 20, pp. 376-382, 2008.
DOI: <http://dx.doi.org/10.1080/10400410802391371>
- [9] McCrae, RR. “Creativity, divergent thinking, and openness to exper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2, pp. 1258 - 1265, 1987.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2.6.1258>
- [10] Csikszentmihalyi, M.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HarperCollins, New York, 1996
- [11] Simonton, DK. “Creativity: Cognitive, personal, developmental, and social aspects.”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pp. 151-158, 2000.
DOI: <http://dx.doi.org/10.1037/0003-066X.55.1.151>
- [12] Runco, MA. “A longitudinal study of exceptional giftedness and creativity.” *Creativity Research Journal*, Vol. 12, pp. 161-164. 1999.
DOI: http://dx.doi.org/10.1207/s15326934crj1202_8
- [13] Koestner, R Walker, M Fichman, L. “Childhood parenting experiences and adult creativ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 33, pp. 92-107, 1999.
DOI: <http://dx.doi.org/10.1006/jrpe.1998.2240>
- [14] Kemple, KM David, GM Wang, Y. “Preschoolers' creativity, shyness, and self-esteem.” *Creativity Research Journal*, Vol. 9, pp. 317-326, 1996.
DOI: http://dx.doi.org/10.1207/s15326934crj0904_3
- [15] Carson, DK Bittner, MT Cameron, BR Brown, P Meyer, S. “Creative thinking as a predictor of school-aged children's stress responses and coping abilities.” *Creativity Research Journal*, Vol. 7, pp. 145-158, 1994.
DOI: <http://dx.doi.org/10.1080/10400419409534520>
- [16] Amabile, TM.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A componential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5, pp. 357-376, 1983.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45.2.357>
- [17] Kim, C. Moon, T. “The Development Study on the Creativity Test for Children.” *인문과학연구*, Vol. 16, pp.

269-306. 1998.

- [18] Rohner, RP. Khaleque, A.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Parental Control Scale: A meta-analysis of cross-cultural and intracultural stud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34*, pp. 643-649, 2003.
DOI: <http://dx.doi.org/10.1177/0022022103255650>
- [19] Kim, D., Ahn, H. "A validation study of NEO Personality Assessment System(NEO-PAS) for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14*, pp. 77-91, 2006.
- [20] Lee, J., Lee, Y.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Multidimensional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K-MSLS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8*, pp. 121-137, 2005.
- [21] Rogers, C. Toward a theory of creativity: Creativity and its cultivation. "A sourcebook for creative thinking," In S. Parnes & H. Harding (Eds.), Scribner's Sons, New York, pp. 64-72, 1959.
- [22] Dewing, K. "Family influences on creativity: A review and discussio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4*, pp. 399-404, 1970.
DOI: <http://dx.doi.org/10.1177/002246697000400403>
- [23] Gardner, H. *Creating minds*, BasicBooks, New York, 1993.
- [24] Tannenbaum, AJ *Gifted children: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perspectives*. Macmillan, New York, 1983.

김근영(Geunyoung Kim)

[정회원]



- 1995년 2월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석사)
- 2006년 5월 : Vanderbilt University, Psychology and Human Development (Ph.D.)
- 2007년 3월 ~ 2011년 8월 :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 2011년 9월 ~ 현재 :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발달심리학, 사회인지 발달, 아동심리학

정소연(So Yeun Jung)

[정회원]



- 2010년 2월 :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문학석사)
- 2013년 4월 ~ 현재 :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관심분야>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 청소년 발달, 청소년 상담